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 신명 26, 4-10
 제2독서 : 로마 10, 8-13
 복 음 : 루가 4, 1-13

술정이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루가 4, 8)

강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박대덕 신부/수류성당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어떤 음식이 맞는 음식이고, 안맞는 음식은 무엇입니까?”이다. 그럴때마다 매패질정도로 평범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다음의 대답을 해드린다. “우선 입에 당기는 음식이 맞는 음식이고, 그중에서도 먹고난 후에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있는 음식은 안맞는 음식입니다.” 입에 당기는 음식이 맞는 음식이라 함은 필요한 것을 절로 찾게끔 생리적 욕구를 장치해주신 하느님의 배려에 의지합이요, 그중에서도 먹고난 후에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드는 음식을 맞지 않는 음식이라 함은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고, 알콜중독 환자가 알콜 음료를 더 찾듯이 때로는 왜곡된 욕구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입에 당기는 음식이라해서 다 이롭고 맞는 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먹보라는 편잔도 받았고, 명예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던 예수께서 빵과, 명예와, 기적의 남용 등의 유혹앞에서는 또달리 이들을 의연하게 물리치시는 오늘의 복음내용을 대하여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라 맑은 영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살라치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릴 일도 아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육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식물의 선택요령을 대입해보면 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것 같다.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갈구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점에서는 일차적으로 욕구에 따라 행동하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악을 가져오는 왜곡된 욕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유익하기만했던가 하는 자각증상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충족된 욕구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하고 좋지 않은 후유증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허망한 유혹임을 깨닫고 멀리 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처럼 명쾌한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예수께서 사십일동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을 때 ‘몹시 허기지셨다’는 복음서의 표현에서처럼 욕구를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통이 신앙과 바른 인생을 위한 신적 영양제라면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욕구대로만 산다면 영육간의 건강증진은 커녕 퇴보와 파멸이 따를 뿐이다.

소리

새봄 새아침 새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예전엔 이 노래를 초등학교 들어가면 배웠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처음 맞는 주일이니 감회가 특별해서 그런 노래가 절로 나왔다.

양심수도 감옥을 나오고 정의도 강물처럼 흐르고 생각할 수록 제 빛을 되찾고 그리고 온세상에 새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주일 아침이다.

올해엔 날마다 새날이요 아침마다 덕담을 나누면서 지나갔으면 싶다. 모초럼 인간이 인간다워질 만한 여건을 갖추고 출발한 한해여서 더욱 그렇다.

올봄엔 우선 쪼들리는 살림이 오히려 훈훈한 바람으로 흘러들었으면 좋겠다. 못가진 이가 모처럼 등이 편안해지고 가난이 진정한 축복이라고들 너도나도 이야기하게 되기를…….

올봄엔 모든 것이 원래대로 자리잡고 몰상식이 부끄러워 도망나가고 비틀렸던 일들이 도로 폐겼으면 한다. 비인간적인 것들이 인간화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있으랴. 인간화가 곧 복음화인 것을…….

올봄엔 반대한 것이 결국 찬성으로 되고 흑이 백도 되고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온전히 제살이 되어 불고 통일의 햇살 아래 냉더쿵 춤을 모두 다 추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소사. (정)

술정이 산책



성서의 오솔길

요엘서

박찬길 신부/사목국장

요엘 예언자에 대하여 전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요엘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지고 정리되었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기원전 900~7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와서 100여년인 지난 400년대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엘서는 전체 4장으로 된 소책자이며,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부분(1~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메마른 땅에 추수 때가 되자 메뚜기 폐가 습격하여 그나마 남은 곡식을 망쳐 버리게 된다. 기근으로 굶주림에 멀게 될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예언자는 이 사건을 야훼의 날이 다가오는 상징으로 여기며, 동포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하느님께 되돌아갈 회심의 기회라고 부르짖느다. 하느님은 간절한 호소를 꾹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

둘째 부분(3~4장)은 야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이다. 이 부분에서 요엘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만민에게 하느님의 영이 내리리라는 예언을

한다. 구약의 소수 예언자들만 아니라 만민이 하느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고 한다. 이 예언은 후에 베드로 사도의 기도(사도 2, 16-17)에서 인용된다. 요엘의 예언은 성령강림의 날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장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공심판이 있으리라는 예언으로서 초대 교회 신자들이 매우 즐겨 읽던 대목이다. 여호사밧(Jehoshaphat)이라는 날말은 '야훼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이다. 예루살렘 근처에 여호사밧이라는 지명이 있으며, 이곳은 죽음의 골짜기로서 심판의 장소를 상징한다.

요엘서는 야훼의 날을 알리는데 전심전력한다. 야훼의 날을 알리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 회개하라고 외친다. 왜냐하면 야훼의 날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힘이 인간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기쁨의 삼

당신을 닮은 우리

강신혜/복자성당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젖어 오신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늘 "믿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20년이 가까워 오도록 어머님의 그 말씀을 알아 듣지 못했는데, 구약 성서 통독을 하면서 비로소 그 뜻을 알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깨우쳐 동화를 읽는 아이처럼,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벅찬 흥분과 감동은 저를 주님께 매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천년 전부터 조상들과 함께 해 오신, 주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곁에 현존하시어 한없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예나 지금이나 늘 이기심과 탐욕으로 당신을 잊고 사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항상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들의 가슴에는 당신을 닮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엄청난 사랑의 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을 다 읽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뚜렷이 외울 수 있는 말마디는 몇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사랑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기에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향기로운 삶을 향해 또다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천주교 우리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가톨릭 농민회에서 생산한 좋은 쌀과 잡곡을 공급해 드립니다.

(0652) 85-4205

축 개원

북일피아노학원

음대 피아노 전공

나의 영(루시아)

안골 현대APT앞(구. 현대피아노)

242-3284

영창피아노사 전주대리점

(A/S 전문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보상판매 환영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전북동 구 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252-0103~4

84-6085

종합화장품

프리본화장품

아름다움의 세계로 오세요

조숙경(루시아)

오거리 한일은행 ↔ 시집가는 날 사이

(0652) 254-9418

동서로 삼익피아노

피아노, 전자오르간, 전자악기 전문
종합악기판매장

김태우(알퐁소)

황진숙(안젤라)

(0652) 88-7717~8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잠깐

축하드립니다. 1998년 3월 3일 직수여식 대상자

시종직 : 이영춘 A.요한(평화동), 전우진 안토니오(월명동), 김성현 비오(인후동),
한택중 미카엘(송천동), 백승운 비오(효자우전), 정치영 T. 베켓트(용안),

정유진 마태오(용안), 김상용 요셉(효자우전)

독서직 : 이금재 마르코(동산동), 황의현 바오로(용머리), 윤창영 엘리아(노송동)
서동원 다미아노(안양 중앙), 남종기 고스마(용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십이 (1282) 김병오



김대중이가 독선적인
깜짝쇼를 얹어하시고..



멍청한 머리만
골라쓰지않게하시고



인기를 익식하여
칼국수를 먹지않게
은총 주소사

교구·제단체 소식

1. 가톨릭 교리신학원 개강 : 3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유후관
2. 사회복지회 월례미사 : 3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3. 사제 연수회 : 3월 3일(화)~4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4.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3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덕진 성당
5. 푸른군대 일일 피정 : 3월 5일(목), 오전 10시, 덕진성당
6. 성모의 기사회 월모임 : 3월 7일(토), 오전 10시, 효자동성당
7. 김제·부안 하나회 창립모임 : 3월 7일(토), 오후 4시, 요촌성당 교육관
8. 가톨릭 문우회 모임 : 3월 7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9. 레크리에이션 연수 : 3월 7일(토)~8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10. 맹인선교회 월례미사 : 3월 8일(일), 오후 1시 30분, 가톨릭센터
11. 예비신학생 첫모임 및 환영미사 : 3월 8일(일), 오후 2시, 성소국장 김진화 신부 집전, 가톨릭센타 3층, 문의 T. 85-0041(교구청 성소국)
12. 기억할 사제 : 3월 1일 이현석(미카엘) 신부 28주기, 6일 이약슬(요셉) 신부 38주기, 7일 한공열 주교 26주기
13.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3월 10일(화), 주제 - 고통은 왜? 지도 - 전달수 신부 3월 14일(토)~15일(일), 주제 - 십자가의 신비와 영성, 지도 - 박찬길 신부

궁금해요

사순절은 40일?

사순절(四旬節)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통회와 보속과 희생으로 재(齋)를 지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40일간을 준비하게 된 것은 대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입니다. 유럽이나 중남미 등에서 사육제(카니발)라는 축제를 지내는 것도 사순절동안 통회의 기간을 지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기 위한 것에서 유래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엄재하신 것을 본 받아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등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도록 권합니다. 이 시기에는 사제의 제의색은 보속을 의미하는 자주색으로 바뀌고, 알렐루야와 영광송은 생략합니다.

사순절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정화와 성화
일시 : 1998.3.12(목) 10:00~17:00
장소 : 금암동 천주교회, 회비없음
강사 : 박엘리사벳(미국 로스엔젤리스 협회교민 강사)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 15)

가톨릭 여성 연합회 주관
일어교실 수강생 모집

초급반 : 이은자 강사
4월 첫째 월요일 1시
중급반 : 서요한나 수녀님
4월 첫째 월요일 2시 30분
개강날짜 : 4월 6일
연락처 : T. 72-8778
019-688-6263

세은 애프터스쿨(원아모집)

대상 : 초등 1, 2, 3학년

시간 : 12시 20분~6시(중식, 간식, 차량운행)

내용 : 언어(글쓰기, 독서), 영어, 피아노, 미술, 과학,
컴퓨터, 수학, 숙제, 수영, 스케이트(방학중)

서신동 성당 옆 놀이터 맞은편

☎ 251-7942, FAX. 251-9958

김천수박사(노렌조) · 최인숙박사(인젤리)

청솔떡백화점

각종 떡의 모든 것. 주문배달

이 종 학(요한)
이 승 철(모이세)

남부시장 매곡교↔전주교 중간

☎ 83-0275, 84-0275

LG 에어컨 예약

98년 신제품 15% 할인+6개월
무이자 할부

할부 대금은 4월부터 불입

식당용 냉장고 취급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이지문구 유통 상사

에버그린 전북대리점
모나미

펜시, 문구, 수입필기구 전문 도매 유통
단체, 납품 및 문구점 개업상담 환영

대표 : 정상남(요한)

이사 : 전현배(다우)

군산시 월명동 명산동 사거리
☎ (0654) 468-8894, 63-5048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허 성 택

◎ "성령안에서 일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갑시다!"

1. 모임 : ① 헤치오 꾸리아 -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회 - 4일(수) 전 10시
③ 바오로회, 베드로회, 동산회 - 8일(주일)
2. 성화의 달 : 3월은 하이츠구역 성화의 달입니다.
3. 성령목상회 : 2일(월)~7일(토) 매일 후 7시부터
4. 섭시간 : 5일(목) 저녁미사 중에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
5. 십자가의 길 : 매주 화~금요일 미사 30분전에 기도바침
6. 시순절 저금통 : 가정별로 1개씩 가져가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7. 국악미사 연습 : 주일 공식미사 전 15분씩 성가연습 협조바람
8. 예비신자 교리 : 주일, 수요일, 목요일 교리반에 인도바람
9. 성서교실 : 매주 화, 수, 목요일 있음
10. 주일학교 안내 : 매주 토요일 4시 - 어린이, 6시 - 중고생 미사에 인도요망
11. 지속적인 성체조배 : 진다네 마을 성체조배실 이용 바랍니다.
12. 교무금 월납제 : 모든 가정은 교무금 신첩과 월납을 바랍니다.
13. 금주 전례 : 해설 - 박종구, 독서 - 김 철(베네딕도) 부부
봉헌 - 백정안(스테파노) 가정
14. 차주 전례 : 해설 - 박수환, 독서 - 강일영(다니엘) 부부
봉헌 - 신영태(프란치스코)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618,120원 □ 교무금 : 2,143,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혜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응

◎ 회개와 보속으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시다!

◎ 금주 : 빙첸시오회 납부일

1. 금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 - 공식미사 후
2. 주간 모임 : ① 사목회 - 4일(수) 후 8시 ② 제대회 - 5일(목) 전 10시, 유아설 ③ 빙첸시오회 - 5일(목) 후 2시, 유아설 ④ 구역(반)장 모임 - 6일(금) 후 2시, 저하성당 ⑤ 성모회, 자모회 - 7일(토) 전 10시, ⑥ 테니스회 - 7일(토) 후 3시
3. 차주 모임 : 율프레야 - 공식미사 후, 동산회 - 후 1시
※ 차주 -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4. 축! 영명축일 : 오 가시미로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뵙습니다. ※ 축하식 - 공식미사 후
5. 사제 연수회 : 3일(화)~4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4일(수) - 말씀의 전례
6. 사순절 특강 : 8일 공식미사중, 김기곤(프란치스코) 신부님
7. 십자가의 길 : 주일 - 공식미사 30분 전, 평일 - 금요일 미사 후
8. 축! 훈인 : 오늘(1일) 12시.
신랑 - 차동주의 장남 차 우(쁘로체스), 신부 - 이문유의 2녀 이경미
9. 독서 : 금주(새벽) - 김종관, 송정희, 차주 - 박성호, 송경애
(공식) - 김학수, 김순덕, 차주 - 김종인, 이매란
10. 미사 안내 : 금주 - 착한의견의 모후Pr., 차주 - 천사들의 모후Pr.
11. 주차 안내 : 금주 - 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 - 바다의 별Pr.

□ 지난주 봉헌금 : 1,762,380원 □ 교무금 : 2,439,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주님, 환난중에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화해와 용서, 사랑과 나눔으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냅시다.

1. 모임 : ①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 - 6일(금) 어머니미사 후
③ 동반 - 다음주 오후
④ 테니스회 - 오늘 후 2시, 해성학교
2. 환영! : 침복순(루시아) 수녀님 부임
※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3. 사제 연수 : 3일~4일(화 - 새벽미사, 수 - 저녁미사)
4. 사순절 끝되례 각 가정에 분양합니다.
5. 쉬고있는 이웃을 살펴봅시다.
6. 사순절 생활실천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청소 봉사 : 3, 4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024,750원 □ 교무금 : 1,389,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통 호

◎ 주님, 환난중에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1. 금주 모임 : ① 꾸리아 - 전 9시 ② 율뜨레야, 편집분과회의 - 낮마사 후 ※ 성전신축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축! 환영 : 정(미란다)수녀님 환영합니다.
3. 예비신자 교리 : 3일(화) 후 8시, 4일(수) 후 8시
4. 사제 연수회 : 3일(화)~4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5. 봉성체 : 5일(목) 사무실에 신청 바람. 6. 섭시간 : 6일(금) 후 7시 30분 7. 레지오 단장 모임 : 6일(금) 후 8시 8. 사목회 : 7일(토) 후 7시 30분 9. 제대회 임원명단 : 회장-강완순(안젤라), 부회장-김희숙(젬마), 총무-장월자(안젤라), 서기-강송자(데레사)
10. 차주 모임 : 요셉회, 안나회, 자모회, 대건회 - 낮미사 후
11. 구역미사 : 13일(금) 후 7시 30분 - 동신2차
12. 중등부 학급성당 : 14일(토) 후 4시 50분
13. 청소 봉사 : 7일(토) - 평화의 모후Pr.
14. 폐품 정리 : 7일(토) - 예언자의 모후Pr.
※ 폐품을 가져오시기 어려운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15. 금주 전례 :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의, 저녁 - 최정순
16. 차주 전례 : 새벽 - 관순옥, 낮 - 김영종, 저녁 - 정인자
17. 본당 공동체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철아성체조배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금요일 오전미사 전

□ 지난주 봉헌금 : 981,810원 □ 교무금 : 1,672,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3,396,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혼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올해는 본당이 정한 「선교 실천의 해」입니다.

선교는 좋은 표양을 보이는 것이 으뜸의 방법입니다.
정감 있는 언어와 모범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1. 금주 모임 : ① 구역봉사자모임 - 4일(수) 전 10시 30분
② 사목회 - 6일(금) 후 8시 ③ 성모기사회 - 7일(토) 전 10시
2. 성서교리교실 : 개강 - 3월 10일, 매주 화요일
오전반 11시~12시, 오후반 8시~9시, 장소 - 교육관, 지도 - 주임신부
※ 쉬는 교우 및 기존교우의 재교육, 많은 관심과 참여바람
3. 사제연수회(1차) : 3일(화)~4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4. 사순절 특강 : 8일(일) 9시, 10시 30분미사중
※ 강사 - 광주 엠마우스 회관 천노엘 신부님
5. 환자 봉성체 : 11일(수) 후 1시 30분
6.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동안 매주 금 전 9시 20분
7. 각 가정에 배부되는 사순돼지를 정성껏 살찌웁니다.
8. 렉크리에이션 연수 : 7일(토)~8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9. 축! 훈인 : ① 8일 12시, 신랑 - 김호영(체피리노), 신부 - 김효진(세례나)
② 후 1시, 신랑 - 임정호(베드로), 신부 - 박정미(사비나)
10. '내 친구들' 3월호가 나왔습니다.
11. 쉬는교우 가정방문 : 5일(목), 쌍용A 1구역
12. 이웃사랑기금 : 15일부터 21일까지 2,932,000원 감사합니다.
13. 미사안내 및 치봉사 : 다음주 - 성당주변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75,550원 □ 교무금 : 2,458,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구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근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47,265단

1. 금주 모임 : ① 사목회임원, 제단체장, 구역(반)장 총회 - 후 3시
② 천주의 모친 C.U. - 공식미사 후
③ 여성분과회회 - 6일(금) 10시미사 후
2. 사제양성후원회 기입과 회비 접수합니다.
3. 축! 훈인 : ① 오늘 12시 30분, 신랑 - 원종천, 신부 - 김희연(말진자)
② 8일 1시, 신랑 - 김대영(토마), 신부 - 채성희
4. 차주 : 애령회 가입과 회비접수, 자모, 성모, 성심회, 봉성체
5.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조세열, 이정금
봉헌 - 유영균, 강선화 부부
6. 차주 전례 : 해설 - 김낙인,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 - 유병환, 김성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784,100원 □ 교무금 : 3,849,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금정이를 전달합시다!"